

##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장 유 진

(정읍 해피트리아동발달센터 음악치료사)

김 동 민\*\*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임상 실습/인턴십을 수행 중인 음악치료 전공생과 전문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가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자기격려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사 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주제어: 음악치료사, 전문적 자기효능감, 수치심, 자기격려

최근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연구를 탈피하여, 치료사 요인이 치료효과 및 치료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Hong & Hwang, 2018; Jung & Kim, 2018; Kim & Hwang, 2018; Lee & Kim, 2019; S. H. Kim & Kim, 2018; Yoo & Kim, 2018).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료사 요인, 내담자 요인, 치료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치료사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Joo & Park, 2016).

치료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치료사는(M. S. Corey & Corey, 2002), 치료를 효과

---

\* 본 연구는 2020년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연구임

\*\* 교신저자 eastjadekim@gmail.com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Lee, Jeong, & Cho, 2005). 인간적 자질은 치료사로서 지녀야 할 품성, 기본적 태도,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고, 전문적 자질은 치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법, 기술 등을 의미한다(Bac & Cho, 2009). 음악치료사는 내적으로 성숙할 때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Kim, 2017), 전문성을 갖출 때 내담자에게 알맞은 치료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Y. S. Kim & Kim, 2019).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97)의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활용하여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믿음을 의미한다(Y. S. Kim & Kim, 2019).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치료사는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며, 치료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Larson et al., 1998).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치료의 효과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자기효능감 확립, 유지, 발달에 있어 필수적일 것이다.

수치심은 자신을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다(Kaufman, 1989). 수치심은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자기(self)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요인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K. M. Baldwin, Baldwin, & Ewald, 2006).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Kim(2012)은 음악치료 그룹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 자기효능감, 평가불안, 슈퍼비전 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수치심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슈퍼바이저가 수치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수행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비개방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Kang(2013)는 부모화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수치심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수치심이 높은 음악치료사일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Lewis(1987)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신에게 광범위한 평가절하를 하여, 작아지고, 움츠러 들고,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낄 때 자기(self) 존재에 대하여 부적절감, 열등감, 부족감, 무능감 등이 유발된다(Tangney, 2002). 그러나 자신의 작고 부족한 모습 즉, 수치심에 대하여 수용하게 될 때 결국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Kim, 2010).

따라서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Hong, 2002). 그러나 No와 Jeong(2007)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타인의 격려를 받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타인의 격려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소

움이 없다고 하였다. 자기격려란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개인의 확신과 자신감을 강화하여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기격려가 포함된다(No & Jeong, 2007).

자기격려는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Yu, 2008). 자기격려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ng, Han, & Lee, 2014). 치료사는 낙담한 내담자의 변화를 돕기 위해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No & Jeong, 2007). 또한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격려는 개인이 역경을 극복하거나 중요한 과제를 마쳐야할 때 개인의 효능감을 향상시킨다(Bandura, 1997).

먼저 수치심과 자기격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Kim(2018)은 대학생의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Lee(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자기격려의 하위요인인 인지, 정서, 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수치심 혹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격려의 수준은 낮았다.

자기격려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No와 Jeong(2007)은 대학생들의 자기격려가 높을 때 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증가한다고 하였다. Tuckman과 Sexton(199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학업 수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격려가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동기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격려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악치료사의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것을 예측하도록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격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격려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사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들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사 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자기격려가 1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방법

### 연구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문 음악치료 자격증을 취득한 음악치료 전문가와 임상 실습/인턴십을 수행 중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15일 열린 국제예술심리치료협회의 워크샵에서 총 10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84부를 현장 수거하였다. 2차 자료수집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협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05부의 설문문이 회수되었다.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총 308부이나, 이중 IRB 심의에서 승인된 사례 수를 추려서 200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 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연구 참여자의 수치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고, 국내에서는 이 척도를 Lee와 Choi(2002)가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Cook(1987)의 척도는 원래 수치심 24문항과 응답편향성을 고려하여 포함된 Rogenberg의 자기존중감 6문항이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Lee와 Choi(2005)의 척도는 자기존중감을 제외한 4가지 요인으로 타당화 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적절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차별(5문항), 실수불안(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분포는 최소 24점에서 최대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ook(1987)의 연구에서는 점수가 50점 이상일시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 수치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Lee와 Choi(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 본 연구는 내적 합치도가 .95로 나타났다.

#### 2.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Self-Efficacy Scales: CAT-SES)

연구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Y. S. Kim과 Kim(2019)이 개발 및 타당화한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Self-Efficacy Scales: CAT-SES)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예술'을 '음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치료중재기술(7문항), 치료관계(4문항), 난제 해결(3문항), 예술적 소양(4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Likert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6=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분포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10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예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Y. S. Kim과 Kim(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94로 나타났다.

### 3. 자기격려/낙담 척도(Self Encouragement-Discouragement Inventory: SE-DI)

연구 참여자의 자기격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o와 Jeong(2007)이 개발 및 타당화한 자기격려/낙담 척도(Self Encouragement-Discouragement Inventory: SE-DI)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격려 척도만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인지(10문항), 정서(10문항), 행동(10문항)으로, 총 30 문항이다. 높은 점수는 자기격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분포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50점이다. No와 Jeong(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인지 .95, 행동 .87, 정서 .87이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인지 .90, 행동 .87, 정서 .89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되었다. 연구의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음악치료사의 수치심, 전문적 자기효능감, 자기격려와 각 요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치료사의 수치심, 전문적 자기효능감, 자기격려의 차이를 분석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그리고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에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 3단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1982)의 Sobel test를 활용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결과

###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치심은 최소 24점에서 최대 95점( $M=50.32$ ,  $SD=16.37$ )으로 나타났고, 자기격려는 최소 64점에서 최대 149점( $M=113.30$ ,  $SD=16.80$ )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최소 39점에서 최대 102점( $M=74.71$ ,  $SD=13.01$ )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cale (N=200)

Inventory(available score distribution)	Min	Max	M	SD
Shame(24-140)	24.00	95.00	50.32	16.37
Inadequacy(10-50)	10.00	37.00	19.60	6.47
Emptiness(5-25)	5.00	22.00	10.05	4.34
Self punishment(5-25)	5.00	20.00	10.08	4.01
Fear of mistake(4-20)	4.00	20.00	11.60	3.70
Self-encouragement(30-150)	64.00	149.00	113.30	16.80
Cognition(5-50)	21.00	50.00	39.20	5.90
Behavior(5-50)	21.00	49.00	36.30	6.02
Emotion(5-50)	20.00	50.00	37.90	6.08
Self-efficacy(18-208)	39.00	102.00	74.71	13.01
Intervention techniques(7-48)	12.00	41.00	28.92	5.30
Therapeutic relationship(4-24)	10.00	24.00	18.22	3.01
Problem solving skills (3-18)	4.00	18.00	12.05	2.94
Artistry(4-14)	4.00	24.00	15.52	3.94



Table 2 continued

Demographic information		n(%)	Shame		
			M(SD)	F(p)	Scheffé
Number of sessions per week	a. 0-20 times	160(80.0)	51.20(16.41)	2.353 (.127)	
	b. 21 times or more	40(20.0)	46.78(15.94)		
Type of employment	a. Full time	34(17.0)	45.88(14.73)	1.007 (.317)	
	b. Part time	112(56.0)	48.83(15.08)		
Deepen training	a. Yes	47(23.5)	45.38(12.77)	5.706 (.018*)	
	b. No	153(76.5)	51.83(17.08)		

\* $p < .05$ , \*\* $p < .01$ 

연령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20대 이상이 54.03( $SD=17.89$ )으로 가장 높고, 40대 이상이 44.10( $SD=12.96$ )으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F=6.560$ ,  $p < .01$ ).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수치심은 20대와 30대·40대 이상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20대 이상의 음악치료사가 30대와 40대의 음악치료사에 비해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학사졸업 이하가 58.26( $SD=19.52$ ), 석사졸업 이상이 46.94( $SD=14.27$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833$ ,  $p < .01$ ). 이는 학사졸업 이하 집단이 석사졸업 이상 집단에 비해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전공생은 55.52( $SD=18.24$ ),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47.75( $SD=16.37$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406$ ,  $p < .01$ ). 이는 전공생 집단이 음악치료 전문가 집단 보다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36개월까지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료사는 집단은 50.92( $SD=17.51$ ), 37개월부터 61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료사 집단은 44.77( $SD=10.9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023$ ,  $p < .05$ ). 이는 치료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낮음을 의미한다. 심화훈련여부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학위 취득 후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은 45.38( $SD=12.77$ ), 받지 않은 치료사 집단은 51.83( $SD=17.08$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706$ ,  $p < .05$ ). 이는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의 수치심이 낮음을 의미한다.

## 음악치료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격려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 학위과정에서 받은 슈퍼비전 총횟수, 학위과정 후 받은 슈퍼비전 총횟수, 음악치료 세션 주당 평균 횟수, 고용형태, 심화훈련여부로 구성하였고, 각 변인에 대한 자기격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in self-encourag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N=200)*

Demographic information		n(%)	Self-encouragement		
			M(SD)	F(p)	Scheffé
Age (years)	a. 20s	107(53.5)	112.40(17.69)	.372 (.690)	
	b. 30s	64(32.0)	114.45(13.16)		
	c. 40s or more	29(14.5)	114.03(13.95)		
Education	a. Attending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egree	39(19.5)	110.51(18.48)	.750 (.474)	
	b. Attending master's degree	45(22.5)	113.87(18.48)		
	c. Master's degree or higher	116(58.0)	114.01(13.62)		
Qualification	a. Students	66(23.0)	112.97(19.14)	0.42 (.839)	
	b. Experts	134(67.0)	113.46(13.95)		
After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a. 36 months under	65(32.5)	109.80(13.51)	9.206 (.003**)	
	b. 37 months-61 months or more	69(34.5)	116.90(13.56)		
Supervision (degree course)	a. 0-30 times	75(37.5)	113.13(15.28)	1.187 (.307)	
	b. 31-60 times	67(33.5)	111.37(16.50)		
	c. 61 times or more	58(29.0)	115.72(15.59)		
Supervision (after degree course)	a. 0-15 times	104(77.61)	111.72(14.26)	7.534 (.007**)	
	b. 16 times or more	30(22.39)	119.47(11.03)		
Number of sessions per week	a. 0-20 times	160(80.0)	113.39(16.35)	.031 (.860)	
	b. 21 times or more	40(20.0)	112.90(13.59)		

Table 3 continued

Demographic information		n(%)	Self-encouragement		
			M(SD)	F(p)	Scheffé
Type of employment	a. Full time	34(17.0)	112.30(13.78)	.969 (.327)	
	b. Part time	112(56.0)	115.05(14.47)		
Deepen training	a. Yes	47(23.5)	117.00(15.03)	3.418 (.066)	
	b. No	153(76.5)	112.16(15.91)		

\*\* $p < .01$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에 따른 자기격려 차이 분석 결과, 36개월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료사 집단은 109.80( $SD=13.51$ ), 37개월부터 61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료사는 집단은 116.90( $SD=13.5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206, p<.01$ ). 이는 음악치료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격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위과정 후 수퍼비전 횟수에 따른 자기격려 차이 분석 결과, 0-15회기 받은 음악치료사 집단은 111.72 ( $SD=14.26$ ), 16회기 이상 받은 음악치료사 집단은 119.47( $SD=11.0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534, p<.01$ ). 이는 학위과정 후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음악치료사 집단의 자기격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음악치료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 학위과정에서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학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음악치료 세션 주당 평균 횟수, 고용형태, 심화훈련여부로 구성하였고, 각 변인에 따른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ifference in professional self-efficacy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N=200)*

Demographic information		n(%)	Professional self-efficacy		
			M(SD)	F(p)	Scheffé
Age (years)	a. 20s	107(53.5)	70.79(13.81)	11.786 (.000***)	a<b,c
	b. 30s	64(32.0)	78.72(10.96)		
	c. 40s or more	29(14.5)	80.34 (9.04)		

Table 4 continued

Demographic information		n(%)	Professional self-efficacy		
			M(SD)	F(p)	Scheffé
Education	a. Attending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egree	39(19.5)	67.18(12.83)	22.368 (.000***)	a,b<c
	b. Attending master's degree	45(22.5)	69.07(13.41)		
	c. Master's degree or higher	116(58.0)	79.43(10.74)		
Qualification	a. Students	66(23.0)	67.17(13.72)	39.553 (.000***)	
	b. Experts	134(67.0)	78.43(10.91)		
After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a. 36 months under	65(32.5)	74.18(11.59)	22.111 (.000***)	
	b. 37 months-61 months or more	69(34.5)	82.42 (8.53)		
Supervision (degree course)	a. 0-30 times	75(37.5)	69.95(13.16)	9.518 (.000***)	a<b,c
	b. 31-60 times	67(33.5)	76.27(11.74)		
	c. 61 times or more	58(29.0)	79.07(12.42)		
Supervision (after degree course)	a. 0-15 times	104(77.61)	77.27(10.94)	5.392 (.022*)	
	b. 16 times or more	30(22.39)	82.43(9.96)		
Number of sessions per week	a. 0-20 times	160(80.0)	73.40(13.51)	8.418 (.004**)	
	b. 21 times or more	40(20.0)	79.95 (9.18)		
Type of employment	a. Full time	34(17.0)	81.06(10.95)	3.574 (.061)	
	b. Part time	112(56.0)	77.03(10.88)		
Deepen training	a. Yes	47(23.5)	80.40 (9.62)	12.453 (.001**)	
	b. No	153(76.5)	72.96(13.43)		

\* $p<.05$ , \*\* $p<.01$ , \*\*\* $p<.001$ 

연령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20대가 70.79( $SD=13.81$ )으로 가장 낮고, 40대 이상이 80.34( $SD=9.04$ )로 가장 높고,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F=11.786$ ,  $p<.001$ ).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20대와 30-40대 이상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30-40대 이상의 음악치료사가 20대 이상의 음악치료사에 비해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학사졸업 이하 집단이

67.18( $SD=12.83$ ), 석사 재학 중인 집단이 69.07( $SD=13.41$ ), 석사졸업 이상 집단이 79.43( $SD=10.74$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368$   $p<.001$ ). 이는 학사졸업 이하와 석사 재학 중인 집단보다 석사졸업 이상의 음악치료사 집단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전공생 집단은 67.17( $SD=13.72$ ),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집단은 78.43( $SD=10.91$ )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생 집단보다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F=39.553$ ,  $p<.001$ ).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에 따른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6개월 이하까지의 집단은 74.18( $SD=11.59$ ), 37개월부터 61개월 이상의 집단은 82.42( $SD=8.53$ )으로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2.11$ ,  $p<.001$ ).

학위과정에서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0회에서 15회 받은 집단이 77.27( $SD=10.94$ )로 가장 낮고 61회기 이상 받은 집단이 79.07( $SD=12.42$ )로 가장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518$ ,  $p<.001$ ). 이는 학위과정에서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0회에서 15회기 받은 집단은 77.27( $SD=10.94$ ), 16회기 이상 받은 집단은 82.43( $SD=9.96$ )으로 이는 학위과정 후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음악치료 세션 주당 횟수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0회에서 20회를 수행하는 치료사 집단은 67.17( $SD=13.72$ ), 21회기 이상 수행하는 치료사 집단은 79.95( $SD=9.18$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418$ ,  $p<.01$ ). 이는 0회에서 20회 수행하는 음악치료사 집단보다 21회기 이상 수행하는 치료사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화훈련 여부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학위 취득 후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은 80.40( $SD=9.62$ ), 받지 않은 치료사 집단은 72.96( $SD=13.43$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453$ ,  $p<.01$ ). 이는 학위과정 후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이 심화훈련을 받지 않은 치료사 집단보다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수치심, 자기격려, 전문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수치심, 자기격려, 전문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과 자기격려는 전반적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과 자기효능감도 전반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기격려와 자기효능감은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Table 5  
*The correlations between shame, self-encouragement,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Variable	1	2	3
1. Shame	1		
2. Self-encouragement	-.562**	1	
3. Professional self-efficacy	-.604**	.589**	1

\*\* $p < .01$

###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검토하였고 1.742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on self-encouragement*

DV	IV	B	SE	$\beta$	t	adj R <sup>2</sup>	F
Self-encouragement	(constant)	140.586	3.001		46.840***	.312	91.390***
	Shame	-.542	.057	-.562	-9.560***		

\*\*\* $p < .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91.390, p < .001$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1.2%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62, p < .001$ ). 즉,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자기격려는 낮아지는 것이다.

##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시하기 전 *Durbin-Watson* 통계량을 검토하였고 1.953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DV	IV	B	SE	$\beta$	t	adj R <sup>2</sup>	F
Professional self-efficacy	(constant)	98.868	2.379		41.556***	.362	113.967***
	Shame	-.480	.045	-.604	-10.676***		

\*\*\* $p < .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113.967, p < .001$ ).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6.2%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04, p < .001$ ). 즉,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음악치료사의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살펴보았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보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1.994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상관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 지수가 1.462로 1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and self-encouragement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DV	IV	B	SE	$\beta$	t	adj R <sup>2</sup>	F
	(constant)	56.649	7.672		7.384***		
Professional self-efficacy	Shame	-.317	.050	-.399	-6.289***	.451	82.703***
	Self-encouragement	.300	.052	.365	5.746***		

\*\*\* $p < .001$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F=82.703$ ,  $p < .001$ ),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45.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17$ ,  $p < .001$ ), 자기격려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00$ ,  $p < .001$ ). 즉,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고, 자기격려가 높아질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전문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검증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회귀계수의 값을 살펴본 후 부분 매개효과와 완전 매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한다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회귀계수 절대값이 3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완전매개효과로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아래 Table 9에 제시하였다.

Table 9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and self-encouragement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IV	DV	$\beta$	adj R <sup>2</sup>	F
Shame	Self-encouragement	-.562***	.312	91.390***
Shame	Professional self-efficacy	-.604***	.362	113.967***
Shame Self-encouragement	Professional self-efficacy	-.399*** .365***	.451	82.703***

\*\*\* $p < .001$

1단계에서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62, p < .001$ ). 2단계에서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04, p < .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동시에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beta = -.399, p < .001$ ), 자기격려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65, p < .001$ ). 그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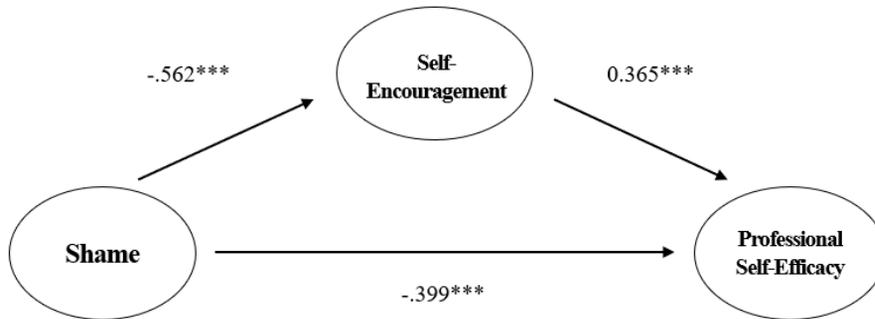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 $p < .00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로 보아,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자기격려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은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604에서 -.399로 감소하였다. 수

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0에는 Sobel test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테스트의 Z공식에서는 산출된 Z 값이  $p < .05$  수준에서  $\pm 1.96$ 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검증 결과,  $Z = -4.932 (p = .000)$ 로 나타났으며,  $p$  값이  $p < .05$ 를 만족하므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진다.

Table 10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sobel test*

Path	Z	p
Shame → self-encouragement → professional self-efficacy	-4.932	.000***

\*\*\*  $p < .001$

결과를 종합하자면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높더라도 자기격려가 높을 경우,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음악치료사일지라도 자기격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수치심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치심은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 심화훈련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에서 Kim(2012)은 13~24개월의 임상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37개월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치료사보다 수치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 학력,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반복된 사회경험, 심층적인 교육과정 및 다양한 임상경험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치심을 인식하고 통찰하여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치료 전공생이 음악치료 전문가보다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자기격려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과 학위과정 후 받은 슈퍼비전 총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위과정보다 학위과정 후의 임상경력과 슈퍼비전에서 자기격려의 내용이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임상경력이 적은 집단은 스스로 격려할 힘이 부족하지만, 경력이 많은 음악치료사는 다양한 임상경험 및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힘이 많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전문적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형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연령, 학력, 전문성, 임상경력, 슈퍼비전, 세션 횟수, 심화훈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령, 학력,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바이다(S. H. Kim & Kim, 2018; Yoo & Kim, 2018). 덧붙여 Kim과 Choi(2013)은 치료경력이 오래된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Hwang(2005)은 석사 이상보다 박사 이상의 상담자가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Lee와 Kim(2002)은 석사과정보다 박사수료 이상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치료 전공생보다 음악치료 전문가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격려보다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잘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특질적인 요인이 아니며,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사 훈련 및 임상경력을 통해 얼마든지 고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른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높을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낮을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고, 수치심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낮고, 수치심이 낮으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Baldwin 외(2006), I. S. Choi와 Choi(2013), Kang(2013), Kim(2012), Lee(2019)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이 스스로 수치심을 낮출 수 있다면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가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은 자기격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격려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친다. 즉, 음악치료사가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더라도 자기격려 수준을 증진 시킨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격려가 높으면 수치심이 낮다는 Joo(2018), Kim(2018), Lee(2015)의 연구, 자기격려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No와 Jeong(2007), Tuckman과 Sexton(199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의

수준이 높다면 치료상황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기격려가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자기격려를 거쳐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이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더라도 자기격려 수준을 증진 시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사가 자기격려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해볼 수 있으며, 자기격려를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바이다. 또한 보수교육에서도 자기격려를 중요한 파트로 다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음악치료사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심분 발휘하려면 수치심을 잘 조절하고, 자기격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총 수거된 설문지는 308부이나, 소속대학교 IRB에서 기존 승인된 200부의 사례 수에 대해서만 분석을 허용하였기에 수집된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 표본이 클수록 연구결과와 신뢰도가 상승함에도 수거된 사례 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수치심의 조절과 자기격려를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조절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수치심과 자기격려 이외에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치료사의 전문성 발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이에 최대한 많은 사례 수를 바탕으로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높더라도 자기격려를 향상시킨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훈련 및 임상에서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격려, 정서적 상태 관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고취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사 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References

- Bae, Y. W., & Cho, S. H. (2009). 상담자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및 수퍼비전을 중심으로 [Counselor's self-reflection,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7, 19-42.
- Baldwin, K. M., Baldwin, J. R., & Ewald, T.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hame, guilt, and self-efficac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0(1), 1-2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Chang, Y. H., Han, J. H., & Lee, J. S. (2014). 초등학생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기격려,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elf-encouragement,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515-523. doi:10.14400/JDC.2014.12.10.515
- Choi, I. S., & Choi, H. N.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2799-2815.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doi:10.1300/j020v04n02\_12
- Corey, M. S. & Corey, G. (2002).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Hong, E. S. (2002).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shame: as focused on shame based identity and relational/structure theor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H. S., & Hwang, E. Y. (2018). 음악치료사의 주관적 안녕감이 치료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usic therapists on the formation of therapeutic bo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Arts*

- Psychotherapy*, 14(1), 177-198. doi:10.32451/KJOAPS.2018.14.1.177
- Hwang, I. H.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unselor's self-efficacy,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working alliance on the satisfaction of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547-563.
- Joo, E. S., & Park, Y. J. (2016). 상담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counselor and the Korean counselors' factors which affect counseling outcome in psychotherap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2), 453-484.
- Joo, M. J.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ncourage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of college students on interpersonal abiliti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Jung, Y. A., & Kim, Y. S. (2018). 임상경력에 따른 음악치료사 발달수준과 소진 및 적응유연성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development level, burnout, and resilience of music therapists based on their work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79-97. doi:10.21330/kjmt.2018.20.1.79
- Kang, S. M.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 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sham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6), 3409-3431. doi:10.15703/kjc.14.6.201312.3409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doi:10.1016/s0191-8869(97)85593-6
- Kim, A. R.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ents and self-encouragement]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Kim, C. Y., & Choi, W. S. (2013). 미술치료사의 자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perceived by music therapist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9(1), 29-52.

- Kim, D. M. (2012). 음악치료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수치심, 평가불안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shame, self-efficacy, supervisory relationship, attachment style, and evaluation anxiety in music therapy group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4(2), 1-27. doi:10.21330/kjmt.2012.14.1.1
- Kim, S. H., & Kim, D. M. (2018). 음악치료사와 인턴이 지각하는 치료관계, 원가족 경험, 전문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rapeutic alliance in the music therapy, family of origin experience, profession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by the music therapists and the music therapy intern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155-177. doi:10.21330/kjmt.2018.20.1.155
- Kim, Y. H., & Hwang, E. Y. (2018). 음악치료사의 스트레스 감내력과 역전이 활용 간의 관계에서 유연성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of music therapists: mediating effect of flexibilit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2), 153-172. doi:10.21330/kjmt.2018.20.2.153
- Kim, Y. S. (2017). 음악치료사가 지각한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t therapists' self-consciousnes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9(3), 67-90. doi:10.21330/kjmt.2017.19.1.29
- Kim, Y. S., & Kim, D. M. (2019).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reative arts therapist self-efficacy scales(CAT-SE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1(2), 1-22. doi:10.21330/kjmt.2019.21.2.1
- Kim, Y. T.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An understanding and solution of shame as psycho-social trai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59-73. doi:10.15703/kjc.11.1.201003.59
- Larson, L. M., Clark, M. P., Henderson, L. A., Koraleski, S. F., Daniels, J. A., & Smith, P. (1998). *Choosing brief videos versus plays for increasing counseling self-efficacy in prepractica trainees: Balancing risk and potenc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Lee, I. S., & Choi, H. R.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651-670.

- Lee, J. H., Jeong, N. W., & Cho, S. H.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Fundamentals of counseling psychology (7th ed.)]. Seoul: Hakjisa.
- Lee, S. H.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타인 인정욕구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need for approval on social anxiet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Lee, S. Y. (2015). **수치심경향성과 대인불안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역할**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need for approval on social anxiet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Lee, Y. S., & Kim, D. M. (2019). 음악치료 전공생 및 전문가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f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and students: The mediated effect of mindfulnes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1(1), 113-139. doi:10.21330/kjmt.2019.21.1.113
- Lee, Y. S., & Kim, K. W. (2002).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f-efficacy and the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f the play therapis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5(1), 69-80.
- Lewis, H. B. (1987). Shame and narcissitic personality,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93-132). New York: Guilford Press.
- No, A. Y., & Jeong, M. (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lf encouragement- discouragement inventor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3), 675-692.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angney, J. P.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Tuckman, B. W., & Sexton, T. L. (1991). The effect of teacher encouragement on student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self-regulated perform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1), 137-146.
- Yoo, M. H., & Kim, D. M. (2018). 음악치료 전문가와 인턴생의 특성불안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ional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it-anxiety and the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intern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57-77. doi:10.21330/kjmt.2018.20.1.57

Yu, M. R. (2008). **실패상황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불안의 변화** [The change of anxiety by stress coping methods and self-encouragement levels in failure situation].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Jang, Yu Jin  
Kim, Dong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hame, professional self-efficacy, and self-encouragement.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is study analyzed the statistical data collected from 200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hame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has negative effects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Second, self-encouragement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Therefore, it has been found that the shame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has a causal effect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and self-encouragement mediates the effect. The result shows factor that influences the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experts and students, and provides significant information on the therapist factor need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self-efficacy.

---

*Keywords:* music therapist, professional self-efficacy, shame, self-encouragement

---

\* eastjadekim@gmail.com

1차 원고 접수일: 2020년 08월 24일

수정원고 접수일: 2020년 09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01일